

전 세계 출판인들의 축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의미

# 미국, 20여 개 출판사가 전체 90% 시장 장악, '어느 회사가 어디로 팔렸느냐'가 관심거리

세계 최대 도서전인 '2007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세계 110개국 6,700여 개 출판사에서 약 18만 명의 담당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0일 개막되어 14일 막을 내렸다. 신간 8만 종을 포함해 약 30만 종의 서적이 전시돼 세계 출판인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많은 작가 토론회와 리셉션이 열렸고 '도서전 첫 참가자를 위한 세미나'와 '국제 서적상 세미나'를 비롯하여 2,500개의 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들이 펼쳐졌다. '유럽언어 사용 문제' '독일과 이스라엘 작가들의 아동문학의 현실과 편견' 등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되어 참가자들이 열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문학보다는 경제·경영을 비롯한 실용서들이 강세를 보였고, 오디오북, 전자책 등 차세대 출판 시장을 이끌 새로운 형태의 책 또한 눈길을 끌었다.

글\_서주현

## 올해의 관람 포인트는 디지털 환경

2007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Guest of honour)은 스페인의 '카탈루냐주'였다. 카탈루냐어를 사용하는 등 독특한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어 스페인의 나머지 지역과 대립관계를 유지해온 카탈루냐는 이번 주빈국 행사에서도 자체 불협화음을 내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포럼과 영화 상영, 전통 무용 공연 등 문화행사가 펼쳐졌지만 정작 책 전시에서는 기대에 못미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2005년에 주빈국으로 초청됐던 한국은 올해 총 240㎡에 달하는 한국관을 설치해 한국 출판문화를 알리고 해외 출판업자와의 관련 계약 등에 나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008년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출판협회(IPA) 서울 총회를 홍보하는 동시에 해외 출판사 참가 유치 노력도 전개했다.

아미존이 올해 들어 전자책 관련 기계 사업

을 시작하고, 독일 출판업계가 구글의 서비스와 유사한 도서검색엔진 '리브레카'를 통한 온라인 도서검색 서비스 제공을 선포한 가운데,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디지털 환경으로 모아졌다. 디지털 환경에 합류하느냐의 여부가 출판사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펭귄출판사 CEO 존 마킨슨과 하퍼 콜린스 사 대표 브라이언 머레이 등 국제 출판계의 거물들이 11일 '글로벌 디지털 세일을 위한 질문'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인 것을 포함하여 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 토론회와 세미나가 70차례나 열린 데서도 국제 출판계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알 수 있었다.

## 주요 거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백미는 무엇보다도 출간 예정작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다. 특히 영미 유럽어권 도서의 경우, 다음 년도 하반기 작품 혹은 그 이후 출간 예정 작품들 까지도 미리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 총 5일간의 일정 중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첫 3일 동안 가장 활발하게 저작권 관련 협상이 이뤄진다.

도서전 첫째 날인 10일에는 데이브 에거스(Dave Eggers)와 키스 리처드(Keith Richards) 등 익숙한 이름을 비롯해 몇몇 데뷔 소설 작가들의 작품이 관심을 끌었다. 에거스는 2006년에는 대학살의 내전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수단 출신 흑인의 삶을 다룬 《뭐라니 뭐》(What is the what)라는 소설로 전미 도서상 최종심에 오르기도 했던 작가이다.

에코(Ecco) 출판사는 데이브 에거스의 최신작 《거친 것들은 어디에 있는가》(Where the Wild Things Are)를 2008년 가을에 출간할 예정인데, 에거스의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으로 보고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키스 리처드의 에이전트는 올해 초 리틀 브라운(Little Brown)에서 출간된 그의 자서전에 대한 저작권 수입으로 약 7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이 날 늦은 오후, 전미 도서상의 최종 후보작 명단이 발표되어 미국의 출판인들은 들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둘째 날은 다섯 자리 숫자의 입찰 경쟁이 뜨거웠던 엠마뉴엘 잘(Emmanuel Jal)의 작품 《전쟁 아동》(War Child)의 영국 거래권에 관심이 몰렸다. 이 작품은 저자가 일곱 살의 군인에서 케냐 최고의 음악 스타로 성장, 아프리카를 넘어 자신의 명성을 확장해 온 이야기를 그린 자서전으로, 리틀 브라운이 다른 영국의 세라 이벌, 존 머레이, 맥밀란, 트랜스 월드를 제치고 저작권을 따냈다. 또한 도서전 시작 이전에



있었던 거래에서 세인트 마틴(St. Martin's Press)이 20만 달러에 미국 판권을 사들였고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도 판권 계약이 완료되었다. 이 책은 2009년 초에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 출간될 예정이다.

셋째 날은 가디언(Guardian) 지의 기자인 벤자민 미(Benjamin Mee)가 쓴 기발한 논픽션인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We Bought a Zoo)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웨인스타인(Weinstein Books)이 미국 판권을 차지했고, 하퍼콜린스(HarperCollins)가 영국 판권을 획득했으며,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의 판권은 각각 랜덤하우스(Random House), 더블데이(Doubleday), 아레나(Arena)가 차지했다.

####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새로운 도전

미국 출판사 담당자들과 에이전트들이 현장에서 외서의 판권을 사고 타국에 자국 도서의 판권을 파는 일이 도서전 참가의 주된 목적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최근 도서전은 1년에 한 번 만나는 전 세계의 거래처 담당자들과 수다를 떨고 다음 거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장'의 개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해가 갈수록 도서전장이 부쩍 한산해지는 느낌이 더해지는 것 같다. 실질적인 결과를 양산

해 내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참가자들은 추후의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데 참가 의의를 두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2차 대전 후에 화려하게 재기하여, 전 세계 도서전의 모델이 되었지만 현재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매체 변화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이라 하겠다. 전통적 형태의 책은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새로운 전자 매체가 그 자리를 메워갈 것이다. 두 번째로 인터넷 이용이나 기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젊은 층의 독서율 하락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작은 출판사들이 지속적으로 큰 회사에 합병되고 있다는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20여 개 출판사가 전체 90%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도서전의 주요 화제는 누가 무슨 책을 발간했느냐가 아니라, '어느 회사가 어디로 팔렸느냐'가 관심거리가 될 정도이다. 소수의 출판사가 전체 출판시장을 좌지우지할 경우 도서전의 의미는 많이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서주현**

서주현님은 북코스모스 에이전시 영미권 담당 대리료 근무하고 있다.